

보도시점 2024. 9. 30.(월) 16:00 배포 2024. 9. 30.(월) 15:00

미래 준비를 위해 청년들의 인식과 고민에 대해 소통

- 최상목 부총리, 기재부 청년인턴을 만나 주요 미래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
- 미래세대에 방점을 둔 「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」을 금년 중 마련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.30(수) 15:00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「미래세대와의 대화」를 개최했다. 이번 간담회는 미래세대로서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로써 마련되었다.

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면, 청년들이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들이 미래세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, 세계 기후 문제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, 부양부담 및 노후불안 등 주요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청년인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. 또한, 부동산,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형성을 포함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.

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,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. 특히 금년말 발표 예정인 「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」에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김봉준 (044-215-4910)
		담당자	사무관	심지혜 (jihyesim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웅 (ggomwoong@korea.kr)

참 고

중장기전략 설문조사 결과(24.7.30~8.22, KDI)

- ☐ 중장기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일반국민 총 1,331명을 대상으로 미래 위험과 불안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

* (1차, 7.30~8.1) 경제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, 331명 응답
(2차, 8.16~8.22) 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대상 전화조사, 1000명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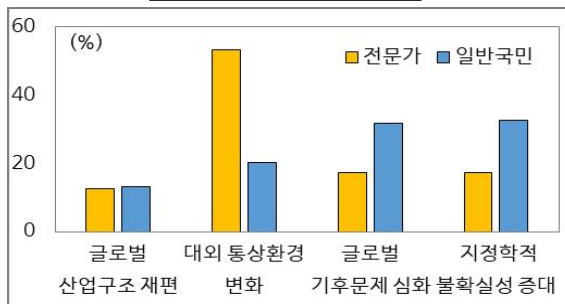
- ☐ 통상환경 변화, 기후문제, 생산가능인구 감소,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불안 등을 향후 20년內 주요 위험·불안요인으로 지목

- ① (대외위험요인) 전문가는 '공급망 재편·그린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'(53.2%), '글로벌 기후문제 심화'(17.2%) 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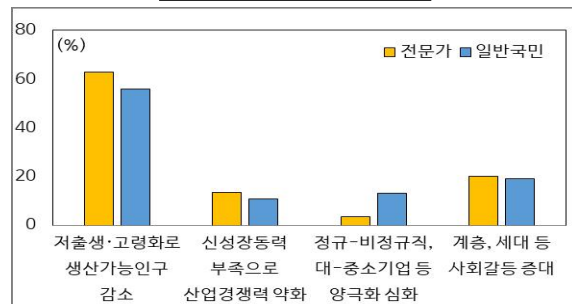
- 일반국민은 '지정학적 불확실성'(32.5%), '글로벌 기후문제 심화'(31.7%) 順

- ② (대내위험요인) '저출생·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'를 전문가(62.8%), 일반국민(55.8%) 모두 가장 큰 대내위험요인으로 지적

대외위험요인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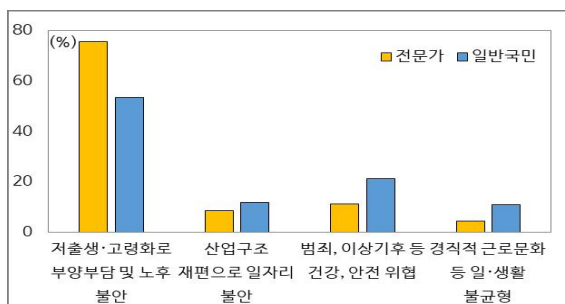
대내위험요인 응답



- ③ (개인불안요인) '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'을 전문가(75.5%), 일반국민(53.6%) 모두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적

- 특히, 일반국민은 모든 연령대에서 '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생활 불안'을 가장 많이 응답

개인불안요인 응답



연령별 개인불안요인 응답

